"무주 적용할 특례사업 발굴해야"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분야별 적극 대응 주문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사진)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특례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27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성장과 도약이라는 역사적 대장정에 올랐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핵심 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범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무주군이 한발 앞서 특례에 적용할 세부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오광석 부의장이 제안한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분야는 태권도, 관광특구, 농업농촌, 산림자원,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글로벌 태권도 교육문화특구 지정, 남북태권도 평화통일지구 등 태권성지 조성 △구천동 관광특구 노후화시설 개선 등 관광특구 사업 △스마트팜 단지 및 천마사업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산악·산지 및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 △국립 기후변화 수목원 조성, 향로산 산림복지 관광단지 조성, 반딧불을 콘텐츠로 한 야간관광 차별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이 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이 외에도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귀향인 지원 특례'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오광석 부의장은 도내 각 시·군의 경제여건, 인구규모, 행정역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응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주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특례 적용이나 세부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행안부 2023년 혁신평가서 선정… 전국 군 단위 순위 20계단 상승

장수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위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군 단위(82개) 31위에서 12위로 20계단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2023년 초부터 지역혁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스마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구축 △산사태 위험알림 정보활용 △군수와의 대화 운영 등 각 부서별·조직별로 세부적이고 자율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전직원 혁신교육 실시 및 신규공무원에 대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분기별 혁신군정상 운영 등으로 공직사회에 일상적인 혁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훈식 군수는 "우리 군이 이번 혁신평가에서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공직사회부터 자율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에서는 61개 지자체(광역 4, 기초 27)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지역 특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원 내달 11일 개강 15개 과정 진행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힘쓰고 있는 무주군이 올해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성인문해를 비롯한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시민참여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과 모둠배움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일원에서 진행한다.

3월 11일에는 평생교육원을 개강할 예정으로 '실버 음악놀이 지도사'를 비롯해 '컴퓨터 ITQ 자격 과정'과 '힐링 타로 상담', '그림책 지도사 양성 과정', 'Talk 톡! 영어 회화' 등 15개 강좌를 운영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자 대상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개설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하며 수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교육감이 인증하는 초등학력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하브루타 창의융합 지도사'와 '실버 음악놀이 지도사', '그림책 지도사', '컴퓨터 ITQ 자격 과정' 등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임채영 과장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다"며 "수강생들의 기대만큼 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은 1인 2개 강좌까지 가능하며 모집정원 미달 시 추가로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평생교육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거나 방문해 접수(~3. 5.)하면 된다.(문의:063-320-2254/2259)

이외에도 6개 읍면 유휴공간을 활용한 모두배움터는 3월 수강생을 모집을 시작해 4~12월까지 운영하며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육은 3월 4일부터 12월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진행한다. 반딧불 아카데미는 전통생활문화 체험관에서 4월 개강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진안군,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11개 읍면을 돌며 수렴한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총 610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건설 358건, 복지 47건, 환경 28건, 농림축산 27건, 안전 26건, 상하수도 22건, 관광 21건, 문화체육 14건, 기타 67건으로 집계됐다.

보고회에 앞서 군은 연초방문이 끝난 후 실과소별로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52건은 2월 중 완료했으며, 179건은 2024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337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42건은 불가로 분류해 관계 공무원이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임신·출산·난임' 모자 보건 정책 강화

무주군이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규모와 범위를 키웠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부부당 최대 30만 원(1회 한)까지이며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대상이 관내 난임 부부 전체로 확대됐으며 전체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출생아 1인당 2백만 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1인당 2백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백만 원으로 확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사과 탄저병 사전 방제 약제 지원 개시

장수군은 사과 탄저병 사전 방제 약제를 신청한 744농가(769.38ha)를 대상으로 적용 약제를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상으로 관내에 사과 탄저병이 다 발생돼 생산비 가중, 수확량 감소 등 사과 재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금년은 고품질 사과 안정생산을 위해 탄저병 등 주요 병해를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자 적용약제를 지원한다.

농가는 사전에 신청한 공급처(농협, 사과조합)에서 약제를 수령해,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개화 전까지 적기 방제를 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진안군보건소(소장 라영현)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4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을 보유한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실천하는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로 신규대상자 접수 후 소득 및 영양평가를 실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총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월 1~2회 각 가정으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사전 전화 접수자에 한해 방문 접수도 진행하며,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